

#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 활용이 학습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진성희(陳成姬)\*\*

성은모(成垠模)\*\*\*

## 논문 요약

최근 청소년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유해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이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유해사이트활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관련 선행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 활용빈도와 유해사이트 몰입도가 그들의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201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차년도 추적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2280명(남: 1152명, 여: 1128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유해사이트 몰입도와 관련해서는 유해사이트 활용경험이 있는 538명(남: 428명, 여: 110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연구대상의 약 23%가 유해콘텐츠활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월 10회 이상 유해콘텐츠를 이용하는 학생은 약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 활용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해사이트 활용빈도와 유해사이트 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 유해사이트 몰입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해사이트 활용빈도 및 유해사이트 몰입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유해사이트 활용빈도에 따른 또래애착에는 차이가 없으며 단지, 유해사이트 몰입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소외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통해 학업성취도 및 학교적응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유해사이트 활용빈도, 유해사이트 몰입도, 학습습관, 학업성취도,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

\* 본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보고서 2010: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 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음.

\*\* 인하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

\*\*\* 교신저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I. 서론

지난 10여 년 동안의 IT 기술의 발달은 컴퓨터의 보급과 확산, 인터넷 속도의 향상으로 일상생활과 직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왔고 2007년 애플사가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우리 사회문화의 변화를 한층 가속화시켰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일, 학습, 놀이,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맺는 방법 등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심에는 디지털세대라 불리는 청소년들이 있다. 12~19세의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99.9%로 사실상 100%에 가깝고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82.2%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또한 초, 중, 고등학생의 96.6%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청소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한희진, 윤미선, 2009). 인터넷의 활용은 청소년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부모와 친구와의 관계형성 및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게임 중독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과 유해사이트에 쉽게 노출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은 손목 및 어깨 통증, 안구건조, 수면부족뿐만 아니라 우울증, 양극성 장애, 정서불안 등과 같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영호, 김미경, 2003; 윤혜미, 남영옥, 2009; Epstein, 2012; Willoughby, 2008). 게임중독은 일상생활 장애와 학습장애를 일으키고 학교적응 및 교우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심하게는 금단현상과 현실구분 장애 등의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비행 및 범죄 행동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이형초, 2002; 한상암, 이효민, 2006; Brenner, 1997; Young, 1996). 또한 청소년기에 성인 음란물이나 폭력물(폭력게임, 폭력영상 등)과 같은 유해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유해사이트활용은 왜곡된 성 정체감 형성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 부진, 좌절감과 무력감에 젖어들게 함으로써 정서적인 왜곡과 심리적 불안정을 상승시키며, 급기야 퇴폐적, 범죄적 충동을 일으키는 결과로 이끌게 된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청소년의 인터넷활용이 미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왔으나 그와 유사하게 청소년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사이트활용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유해사이트활용 관련 선행연구도 폭행, 청소년비행, 우울, 성적충동 등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김현수, 김현실, 2000; 이봉건, 1999; 백승문, 황미영, 김영희, 2003)가 대부분이고 학생들의 인지발달과 학교생활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 실태가 성별에 따라 상이하다는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유해사이트활용 또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밝힌 연구 또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중 중학생들의 유해사이트활용이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혀 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인터넷활용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유해사이트활용이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구현영, 2013; 곽민주, 2004; 성은모, 2013; 성은모, 진성희, 2012; Augner & Hacker, 2012; Bianchi & Philips, 2005),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 형태와 인터넷 중독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공격적인 폭력물이나 게임 등에 있어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에게 보다 더 노출되고 유해매체나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공통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유해사이트 활용에 대한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면 건전한 인터넷 활용 전략이나 유해사이트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유해사이트활용에 있어 양과 질을 중심으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유해사이트활용빈도와 질적인 측면에서는 유해사이트몰입도가 학습관련변인으로 학습습관과 학업성취도 그리고 학교생활관련변인으로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중학생들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유해사이트활용빈도와 유해사이트몰입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중학생들의 성별과 유해사이트활용빈도에 따라 학습 및 학교생활에 차이가 있는가?
3. 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몰입도가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유해사이트활용과 청소년의 학습 및 학교생활

### 1. 청소년의 성별과 유해사이트활용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유해사이트활용은 음란물과 폭력 사이트 접속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약 70-80%정도가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고 약 57%가 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선, 2002; 문태화, 2002). 초등학교 때부터 음란물 사이트를 접촉하기 시작하여 주로 중학교 1~2학년 때에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란(2002)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59%의 학생들이 '음란물 중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학생들은 음란 사진과 음란 만화(53%), 음란 동영상(34%), 음란

소셜(23%)의 순서로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보는 목적으로 상당수는 성적 흥분이거나 만족을 위해 이용한다고 응답(30.1%)하였고 그 외 음란물을 보며 자위행위(10.5%)나 사이버섹스(5.9%) 등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유해사이트활용은 성별에 따라 그 활용실태가 다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으며, 불건전사이트의 이용 경험도 많다(강성희, 2008; 문태화, 2002).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란물 접촉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피해는 여학생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이봉건, 1999; 백승문, 황미영, 김영희, 2003). 구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란물 접촉이 많을수록 우울 성향이 높게 나타나므로 여학생의 경우 음란물을 접촉하는 동기와 심리적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2. 청소년의 유해사이트활용과 학습

청소년의 유해사이트활용과 학습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청소년의 유해사이트활용과 학습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김병준과 김윤희(2004), 한정선과 김세영(2006), Kubey, Lavin과 Barrow(2001), Mythily, Qiu와 Winslow(2008)는 인터넷활용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최명숙(2004)는 학업성적 수준에 따른 게임 이용 빈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게임 이용 시간이 길수록 학업성적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Lee와 Perry(2004), Pawlak(2002)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학업성취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송민(2008)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한다고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활용 목적이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학생들이 인터넷을 정보 검색, 학교숙제, 인터넷 강의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때 학업성취도가 높고 동영상 시청, 오락, 게임을 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할 때 학업성취도는 낮다.

인터넷 활용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의 유해사이트활용은 학습과 관련이 있으며 부적상관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문태화(2002)는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폭력 사이트 접속 경험이 있고, 폭력 사이트 접속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음란사이트 접속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 사이트 접속 경험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은 학창시절을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주요변인 중 하나가 자기통제력이다. 자기통제력은 자신의 인지와 정서 및 행동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Lim, 2005).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은경, 2007; Zimmerman, 1990). 반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의 의지를 조절하지 못해 인터넷이나 게임을 과다사용하게 되어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태근, 2005; 한정선, 김세영, 2006).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이 유해사이트몰입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사이트몰입도가 자기통제력과 관련이 있는 성취 가치, 숙달적목적지향성,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 3. 청소년의 유해사이트활용과 학교생활

청소년의 유해사이트활용과 학교생활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인터넷 활용과 교우관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활용과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또래지지가 낮고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진아, 2003; 심란희, 2004; 안경옥, 2005; 황정미, 2004). 안세라(2003)는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학생일수록,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친구를 사귀는데 대한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천동렬(1999)은 인터넷에 대한 집착이 중증인 학생은 교우관계에 있어 장애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소영(2000)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학생들은 대인관계 갈등 상황에서 협상 능력에 문제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을 즐기므로 게임 속 행동을 모방하거나 폭력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1998)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음란물의 접촉은 주로 친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친구 관련변인이 음란물 접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유해사이트 활용과 청소년의 교우관계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들이 음란 영상물에 처음 접촉할 때, 친구로 인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54.9%로 가장 많았고 주로 같이 보는 사람 역시 친구가 6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청소년의 유해사이트활용은 또래집단과 매우 관련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곽이영, 2001).

이와 함께 인터넷 활용과 또래와의 면대면 만남의 빈도 간에도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 소병권(2005)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학생들은 실생활 친구와의 만남의 횟수가 줄었다고 보고하였고 진종순(2000)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혼

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인터넷 사용이 적절할 경우에는 실생활 친구와 적당한 유대 관계가 형성 되지만, 그 사용이 지나칠 경우에는 실생활 친구관계도 멀어지고 친구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인터넷 사용은 또래집단의 친근감의 매개체이지만 중독또래집단에서는 인터넷 사용은 또래 집단 내에 소외감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유해사이트몰입은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oldberg(1996)는 '인터넷 중독은 일정한 수준의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상에서 보내기를 원하게 하고 접속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중독자는 인터넷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만 사용을 중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친구나 학교에서 배척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인터넷에 중독되게 되면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수준이 낮아 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이세용(2000)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독서·학교과제 수행·공부시간이 줄었거나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전체학생의 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사용이 학교생활적응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유해사이트몰입이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 사회 및 사교활동의 감소를 가져오는 등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01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 추적조사는 2011년 9월 중순~11월 말까지 실시하였으며, 중 2 패널의 2차년도 추적조사의 조사 대상은 1차년도(2010년) 확정표본인 2,351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 결측치를 제외한 2,280명(남: 1,152명, 여: 1,128명)이 최종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 중 유해사이트 몰입도와 관련된 연구문제는 유해사이트 이용 경험이 있는 538명(남: 428명, 여: 11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나이는 약 15.89세(표준편차=.34)이다.

#### 2. 연구도구

청소년들의 유해사이트활용이 학습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

해 양적인 독립변인으로 유해사이트활용빈도와 질적인 독립변인으로 유해사이트몰입도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탐색을 기반으로 학습관련 종속변인으로 학습습관과 학업성취도, 학교생활관련 종속변인으로는 또래에착과 학교생활적응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유해사이트활용빈도, 유해사이트몰입도, 학습습관, 학업성취도, 또래에착, 학교생활적응 등을 측정 및 확인할 수 있는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유해사이트활용빈도와 학업성취도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1: 전혀 아니다 ~ 4: 매우 그렇다).

유해사이트활용빈도는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08)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학생들의 유해사이트이용주기와 횟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학생은 지난 일 년 동안 19세 이상 성인만 가능한 매체(잡지나, 책, 영화, 동영상, TV 프로그램, 게임 등)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습니까?”이고 ‘①전혀 없다 ② 일주일 평균 ③ 한 달 평균 ④ 일 년 평균’ 중 선택하고 구체적인 횟수를 적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응답한 결과를 한 달 이용횟수로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유해사이트몰입도는 김은정·이세용·오승근(2003)의 인터넷 중독 척도 문항 중 유해사이트와 관련 있는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유해사이트활용시간, 다른 일이나 학업에의 방해, 성인 매체에 대한 몰입 등 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2로 나타났다. 유해사이트몰입도 문항의 예는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또는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등이 있다. 유해사이트몰입도 관련 문항은 연구 참여자 중 유해 매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습습관은 양명희(2000; 김세영, 2006 재인용)에 의해 개발된 자기조절학습능력 측정도구 84 문항 중, 김세영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재구성한 동기조절과 행동조절 관련 문항을 활용하였다. 학습습관은 성취가치 7문항, 숙달 목적 지향성 2문항, 행동통제 5문항, 학업시간관리 4 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학습습관 문항의 예로는 ‘나는 하던 공부를 끝낼 때까지 공부에 집중한다’ 또는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 계획을 세운다’ 등이 있다.

학업성취도는 2011년 1학기 10개 교과목(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도덕, 가정/기술, 음악, 미술, 체육) 성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해 8점 척도(96점 이상 =1, 95~90점 =2, 89~85점=3, 84~80점=4, 79점~75점=5, 74점~70점=6, 69~65점=7, 64점 이하=8)로 물었다. 그러나 해석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점수를 역코딩 하였으며, 따라서 해당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측정 점수가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취도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또래에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애착척도(IPPA)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별

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의사소통, 신뢰, 소외 각 하위영역 당 3개 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또래애착 문항의 예로는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는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등이 있다.

학생생활적응은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생생활적응 문항은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 5문항, 교우관계 5문항, 교사관계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문항의 예로는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또는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등이 있다.

### 3. 자료분석 방법 및 분석도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유해사이트활용빈도와 유해사이트몰입도가 학습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습습관, 학업성취도,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적 검증방법이 활용되었다. 첫째,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활용빈도와 유해사이트몰입도 차이를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성별과 유해사이트활용빈도에 따른 학습 및 학교생활 차이를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학습 및 학교생활 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유해사이트활용빈도에 따른 학습 및 학교생활 차이는 변량분석(ANOVA)을 실시 한 후, 유의미한 차이에 있어서는 사후검정으로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활용도가 학습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단순회귀 분석(sing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분석 도구로는 SPSS 18.0이 사용되었다.

## IV. 연구결과

### 1.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활용이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2학년 학생 2280명으로 그 중 유해사이트활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538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의 약 23%가 유해사이트활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해사이트활용 경험이 있는 학생의 약 80%가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해사이트활용 경험이 4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활용빈도와 유해사이트몰입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인 2280명을 대상( $t=10.294, p<.00, d=.33$ )과 유해사이트활용경험이 있는 538명을 대상( $t=2.559, p<.011, d=.27$ )으로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활용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두 사례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활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남학생은 평균 약 1.5회 그리고 여학생은 평균 약 0.25회 정도 유해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해사이트활용경험이 있는 5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은 한 달에 평균 약 4회 (주 1회), 여학생은 약 2.5회 유해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몰입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 (평균=1.66, 표준편차=.57)이 여학생(평균=1.40, 표준편차=.5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해사이트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318, p<.01, d=.46$ ).

<표 1>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활용빈도 및 유해사이트몰입도 차이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d
유해사이트활용빈도 (전체대상)	남	1152	1.47	3.64	10.294**	.33
	여	1128	.25	1.72		
	전체	2280	.87	2.92		
유해사이트활용빈도 (활용경험자)	남	428	3.96	5.08	2.559*	.27
	여	110	2.57	4.99		
	전체	538	3.68	5.08		
유해사이트몰입도 (활용경험자)	남	428	1.66	.57	4.318**	.46
	여	110	1.40	.53		
	전체	538	1.61	.57		

\*\* :  $p<0.01$ , \* :  $p<0.05$

### 1) 성별과 유해사이트활용빈도에 따른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도 차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활용빈도와 유해사이트몰입도가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성별에 따른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차이에 대한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전체 연구대상 2280명과 유해사이

트활용경험이 있는 538명을 대상으로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학습습관( $t=2.873$ ,  $p<.01$ ,  $d=.11$ )과 하위변인 중 성취목적( $t=3.297$ ,  $p<.01$ ,  $d=.13$ ), 성취목적지향성( $t=5.844$ ,  $p<.01$ ,  $d=.24$ ), 행동통제( $t=5.113$ ,  $p<.01$ ,  $d=.24$ ) 변인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학업성취도( $t=-3.724$ ,  $p<.01$ ,  $d=.15$ )와 학습습관의 하위변인 중 학습시간관리( $t=-3.265$ ,  $p<.01$ ,  $d=.12$ )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성별에 따른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도 차이분석

종속변인	대상	독립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d
학습습관	전체 (2280명)	남	1152	2.75	.44	2.873**	.11
		여	1128	2.70	.43		
	활용경험자 (538명)	남	428	2.75	.41	2.414*	.26
		여	110	2.64	.44		
- 성취목적	전체 (2280명)	남	1152	3.08	.60	3.297**	.13
		여	1128	3.00	.59		
	활용경험자 (538명)	남	428	3.06	.57	2.670**	.28
		여	110	2.90	.57		
- 성취목적지향성	전체 (2280명)	남	1152	2.81	.73	5.844**	.24
		여	1128	2.63	.73		
	활용경험자 (538명)	남	428	2.82	.70	2.548*	.28
		여	110	2.62	.77		
- 행동통제	전체 (2280명)	남	1152	2.57	.37	5.113**	.24
		여	1128	2.48	.37		
	활용경험자 (538명)	남	428	2.58	.37	2.121*	.21
		여	110	2.50	.41		
- 학습시간관리	전체 (2280명)	남	1152	2.39	.70	-3.265**	.12
		여	1128	2.48	.69		
	활용경험자 (538명)	남	428	2.37	.68	-.180	-
		여	110	2.39	.69		
학업성취도 <sup>a</sup>	전체 (2280명)	남	1152	4.13	1.95	-3.724**	.15
		여	1128	4.44	1.93		
	활용경험자 (538명)	남	428	3.99	1.87	-.476	-
		여	110	4.08	1.93		

\*\* :  $p<0.01$ , \* :  $p<0.05$

a : 3=74점~70점, 4=79점~75점, 5=84~80점

유해사이트활용경험이 있는 538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연구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던 학습시간관리와 학업성취도에 대한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는 유사 결과가 산출되었다. 전체적인 학습습관에 있어 남학생(평균=2.75, 표준편차=.41)이 여학생(평균=2.64, 표준편차=.4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t=2.414, p<.05, d=.26$ ) 성취목적(남: 평균=3.06, 표준편차=.57, 여: 평균=2.90, 표준편차=.57,  $t=2.670, p<.01, d=.28$ ), 성취목적지향성(남: 평균=2.82, 표준편차=.70, 여: 평균=2.62, 표준편차=.77,  $t=2.548, p<.05, d=.28$ ), 행동통제(남: 평균=2.58, 표준편차=.37, 여: 평균=2.50, 표준편차=.41,  $t=2.121, p<.05, d=.21$ )에 대해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사이트활용빈도수준에 따른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유해사이트활용빈도를 전체 4수준(고빈도, 중빈도, 저빈도, 무빈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유해사이트를 주 1회 이상 사용자는 고빈도, 월 1~3회 사용자는 중빈도, 월 1회 미만 사용자는 저빈도, 유해사이트활용경험이 없는 사용자는 무빈도 사용자로 구분하였다.

&lt;표 3&gt; 유해사이트활용빈도수준에 따른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도 차이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d)
학습습관	고빈도	209	2.70	.40	1.001	-
	중빈도	169	2.72	.70		
	저빈도	160	2.77	.45		
	무빈도	1742	2.72	.44		
- 성취목적	고빈도	209	3.01	.58	.434	-
	중빈도	169	3.01	.53		
	저빈도	160	3.07	.60		
	무빈도	1742	3.04	.60		
- 성취목적지향성	고빈도	209	2.78	.75	1.974	-
	중빈도	169	2.73	.65		
	저빈도	160	2.83	.75		
	무빈도	1742	2.70	.74		
- 행동통제	고빈도	209	2.57	.39	2.721*	-
	중빈도	169	2.55	.37		
	저빈도	160	2.58	.38		
	무빈도	1742	2.51	.37		
- 학습시간관리	고빈도	209	2.26	.69	4.917**	저>고(.32) 무>고(.27)
	중빈도	169	2.42	.65		
	저빈도	160	2.48	.68		
	무빈도	1742	2.45	.70		
학업성취도 <sup>a</sup>	고빈도	209	4.02	2.00	5.734**	무>중(.27)
	중빈도	169	3.83	1.79		
	저빈도	160	4.17	1.81		
	무빈도	1742	4.37	1.96		

\*\* :  $p < 0.01$ , \* :  $p < 0.05$ 

a : 3=74점~70점, 4=79점~75점, 5=84~80점

중학생들의 유해사이트활용빈도수준에 따른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이 학습습관의 하위변인 중 행동통제( $F(3, 2276)=2.721, p=.043$ )와 학습시간관리( $F(3, 2276)=4.917, p=.002$ ) 그리고 학업성취도( $F(3, 2276)=5.734, p=.001$ )에 있어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습시간관리변인은 무수준집단(평균=2.45, 표준편차=.70)과 저수준집단(평균=2.48, 표준편차=.68)이 고수준집단(평균=2.26, 표준편차=.69)보다 학습시간관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는 무빈도집단(평균=4.37, 표준편차=1.96)이 중빈도집단(평균=3.83, 표준편차=1.7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습관 관련 변인들의 평균값만 비교했을 경우, 무빈도집단보다 저빈도집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성취목적지향성과 관련해서는 저빈도>고빈도>중빈도>무빈도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몰입도가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몰입도가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이 전체적인 학습습관 및 하위변인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성취도( $F(2, 535)=-2.867, p=.004$ )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유해사이트몰입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F(2, 535)=-2.629, p=.009$ )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유해사이트몰입도가 학업성취도( $F(2, 535)=1.104, p=.296$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몰입도가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성별	사례수	R2 (adj. R2)	F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 $\beta$ )	t
학습습관	남자	428	.001(-.002)	.231	-	-	-
	여자	110	.000(-.009)	.040	-	-	-
	전체	538	.000(-.002)	.008	-	-	-
- 성취목적	남자	428	.004(.001)	1.570	-	-	-
	여자	110	.000(-.009)	.002	-	-	-
	전체	538	.001(-.001)	.384	-	-	-
- 성취목적지향성	남자	428	.006(.003)	2.360	-	-	-
	여자	110	.004(-.005)	.440	-	-	-
	전체	538	.003(.001)	1.406	-	-	-
- 행동통제	남자	428	.001(-.002)	.358	-	-	-
	여자	110	.015(.006)	1.629	-	-	-
	전체	538	.004(.002)	2.151	-	-	-
- 학습시간관리	남자	428	.002(.000)	.830	-	-	-
	여자	110	.000(-.009)	.016	-	-	-
	전체	538	.001(.000)	.527	-	-	-
학업성취도	남자	428	.016(.014)	6.913	-.415	-.127	-2.629**
	여자	110	.010(.001)	1.104	-	-	-
	전체	538	.015(.013)	8.220	-.406	-.123	-2.867**

\*\* :  $p < 0.01$ , \* :  $p < 0.05$

## 2.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활용이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1) 성별과 유해사이트활용빈도에 따른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 차이

청소년의 성별과 유해사이트활용빈도에 따른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차이에 대한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 차이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전체 연구대상 2280명과 유해사이트활용경험이 있는 538명을 대상으로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또래애착의 하위변인인 소외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또래와의 친밀감이 높고 학교에도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또래애착( $t=-7.304, p<.01, d=.30$ )과, 의사소통( $t=-7.428, p<.01, d=.20$ ), 신뢰변인( $t=-6.390, p<.01, d=.28$ )과 관련하여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교생활적응( $t=-2.283, p<.05, d=.08$ )과 그 하위변인인 학습활동( $t=-3.062, p<.01, d=.14$ ), 학교규칙( $t=-3.373, p<.01, d=.20$ ), 교우관계( $t=-3.068, p<.01, d=.12$ ), 교사관계( $t=-3.068, p<.01, d=.12$ )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유해사이트활용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또래애착( $t=-2.150, p<.05, d=.23$ )과 그 하위변인인 의사소통( $t=-2.16, p<.05, d=.20$ )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신뢰와 소외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변인 중 교우관계( $t=-3.440, p<.01, d=.38$ )와 교사관계( $t=-3.440, p<.01, d=.38$ )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lt;표 5&gt; 성별에 따른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 차이분석

종속변인	대상	독립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d
또래애착	전체 (2280명)	남	1152	2.60	.39	-7.304**	.30
		여	1128	2.70	.33		
	활용경험자 (538명)	남	428	2.64	.38	-2.150*	.23
		여	110	2.73	.31		
- 의사소통	전체 (2280명)	남	1152	2.81	.63	-7.428**	.20
		여	1128	3.00	.53		
	활용경험자 (538명)	남	428	2.86	.58	-2.160*	.20
		여	110	2.98	.48		
- 신뢰	전체 (2280명)	남	1152	2.95	.66	-6.390**	.28
		여	1128	3.12	.60		
	활용경험자 (538명)	남	428	3.00	.61	-1.273	-
		여	110	3.09	.60		
- 소외	전체 (2280명)	남	1152	2.03	.65	.763	-
		여	1128	2.01	.63		
	활용경험자 (538명)	남	428	2.07	.65	-.704	-
		여	110	2.12	.63		
학교생활적응	전체 (2280명)	남	1152	2.80	.42	-2.283*	.08
		여	1128	2.83	.36		
	활용경험자 (538명)	남	428	2.74	.39	-1.407	-
		여	110	2.80	.37		
- 학습활동	전체 (2280명)	남	1152	2.75	.48	-3.062**	.14
		여	1128	2.81	.42		
	활용경험자 (538명)	남	428	2.71	.46	-1.596	-
		여	110	2.79	.50		
- 학교규칙	전체 (2280명)	남	1152	2.75	.60	-3.373**	.20
		여	1128	2.83	.52		
	활용경험자 (538명)	남	428	2.63	.60	-1.279	-
		여	110	2.70	.59		
- 교우관계	전체 (2280명)	남	1152	2.85	.45	-3.068**	.12
		여	1128	2.90	.39		
	활용경험자 (538명)	남	428	2.85	.42	-3.440**	.38
		여	110	3.01	.41		
- 교사관계	전체 (2280명)	남	1152	2.85	.45	-3.068**	.12
		여	1128	2.90	.39		
	활용경험자 (538명)	남	428	2.85	.42	-3.440**	.38
		여	110	3.01	.41		

\*\* :  $p < 0.01$ , \* :  $p < 0.05$

중학생들의 유해사이트활용빈도수준에 따른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유해사이트활용빈도수준과 또래애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유해사이트활용빈도수준에 따른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 차이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 <i>d</i> )
또래애착	고빈도	209	2.65	0.39	.258	-
	중빈도	169	2.67	0.36		
	저빈도	160	2.67	0.34		
	무빈도	1742	2.65	0.37		
- 의사소통	고빈도	209	2.84	0.56	1.030	-
	중빈도	169	2.92	0.55		
	저빈도	160	2.91	0.57		
	무빈도	1742	2.91	0.60		
- 신뢰	고빈도	209	3.00	0.62	.413	-
	중빈도	169	3.00	0.62		
	저빈도	160	3.06	0.59		
	무빈도	1742	3.04	0.64		
- 소외	고빈도	209	2.11	0.67	2.582	-
	중빈도	169	2.09	0.67		
	저빈도	160	2.02	0.60		
	무빈도	1742	2.00	0.64		
학교생활적응	고빈도	209	2.75	0.37	5.529**	무>고(.20) 무>중(.23)
	중빈도	169	2.74	0.39		
	저빈도	160	2.78	0.40		
	무빈도	1742	2.83	0.39		
- 학습활동	고빈도	209	2.71	0.47	5.313**	무>고(.19) 무>중(.26)
	중빈도	169	2.68	0.47		
	저빈도	160	2.80	0.47		
	무빈도	1742	2.80	0.45		
- 학교규칙	고빈도	209	2.60	0.58	18.440**	무>고(.44) 무>중(.34) 무>저(.24)
	중빈도	169	2.63	0.61		
	저빈도	160	2.71	0.60		
	무빈도	1742	2.84	0.54		
- 교우관계	고빈도	209	2.89	0.42	.364	-
	중빈도	169	2.86	0.43		
	저빈도	160	2.90	0.42		
	무빈도	1742	2.88	0.42		
- 교사관계	고빈도	209	2.89	0.42	.364	-
	중빈도	169	2.86	0.43		
	저빈도	160	2.90	0.42		
	무빈도	1742	2.88	0.42		

\*\* :  $p < 0.01$ , \* :  $p < 0.05$



그러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는 유해사이트활용빈도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2276)=5.529, p=.001$ ). 집단간 차이를 보면 매체활용경험이 없는 집단(평균=2.83, 표준편차=.39)이 고빈도집단(평균=2.75, 표준편차=.37)과 중빈도집단(평균=2.74, 표준편차=.39)보다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학습활동( $F(3, 2276)=5.313, p=.001$ )과 학교규칙변인( $F(3, 2276)=18.440, p=.000$ )에 있어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습활동에 대해서는 유해사이트활용경험이 없는 집단(평균=2.80, 표준편차=.45)이 고빈도집단(평균=2.71, 표준편차=.47)과 중빈도집단(평균=2.68, 표준편차=.4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규칙과 관련하여 유해사이트활용경험이 없는 집단(평균=2.84, 표준편차=.54)이 다른 집단들(고빈도: 평균=2.60, 표준편차=.58; 중빈도: 평균=2.63, 표준편차=.61; 저빈도: 평균=2.71, 표준편차=.6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 대해서는 유해사이트활용빈도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몰입도가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몰입도가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7>과 같이 전체적인 또래애착( $F(2, 535)=.658, p=.418$ ) 및 학교생활적응( $F(2, 535)=1.512, p=.219$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소외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학습활동과 학교규칙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 하위변인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소외( $F(2, 535)=12.107, p=.001$ )에 대해서는 유해사이트몰입도가 높을수록 또래집단에서의 소외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 $F(2, 535)=8.899, p=.003$ )과 여학생( $F(2, 535)=5.264, p=.024$ ) 모두에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학습활동( $F(2, 535)=8.966, p=.003$ )에 대해서는 유해사이트몰입도가 낮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학습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 $F(2, 535)=6.586, p=.011$ )에 한해서만 나타났다. 또한 유해사이트몰입도가 학교규칙( $F(2, 535)=2.207, p=.138$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 $F(2, 535)=4.479, p=.035$ )의 경우 유해사이트몰입도가 높을수록 학교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해사이트몰입도가 높을수록 교우관계( $F(2, 535)=3.873, p=.05$ )와 교사관계( $F(2, 535)=3.873, p=.05$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t;표 7&gt;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몰입도가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성별	사례수	R2 (adj. R2)	F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 $\beta$ )	t
또래애착	남자	428	.002(.000)	.817	-	-	-
	여자	110	.009(.000)	1.034	-	-	-
	전체	538	.001(.000)	.658	-	-	-
- 의사소통	남자	428	.000(-.002)	.034	-	-	-
	여자	110	.000(-.009)	.035	-	-	-
	전체	538	.001(.000)	.559	-	-	-
- 신뢰	남자	428	.004(.001)	1.522	-	-	-
	여자	110	.004(-.005)	.419	-	-	-
	전체	538	.005(.003)	2.549	-	-	-
- 소외	남자	428	.021(.018)	8.899**	.164	.143	2.983
	여자	110	.046(.038)	5.264*	.256	.216	2.294
	전체	538	.022(.020)	12.107	.169	.149	3.480
학교생활적응	남자	428	.005(.002)	2.032	-	-	-
	여자	110	.005(-.004)	.532	-	-	-
	전체	538	.003(.001)	1.512	-	-	-
- 학습활동	남자	428	.015(.013)	6.586*	-.100	-.123	-2.566
	여자	110	.010(.001)	1.084	-	-	-
	전체	538	.016(.015)	8.966**	-.106	-.128	-2.994
- 학교규칙	남자	428	.010(.008)	4.479*	-.107	-.102	-2.116
	여자	110	.021(.012)	2.288	-	-	-
	전체	538	.004(.002)	2.207	-	-	-
- 교우관계	남자	428	.005(.003)	2.247	-	-	-
	여자	110	.000(-.009)	.007	-	-	-
	전체	538	.007(.005)	3.873*	-.063	-.085	-1.968
- 교사관계	남자	428	.005(.003)	2.247	-	-	-
	여자	110	.000(-.009)	.007	-	-	-
	전체	538	.007(.005)	3.873*	-.063	-.085	-1.968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활용빈도와 유해사이트몰입도가 학습습관, 학업성취도,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의를 하고 중학생들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유해사이트활용빈도와 유해사이트몰입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유해사이트활용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해사이트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고 유해사이트몰입도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유해사이트활용 실태를 연구한 강성희(2008), 문태화(2002), 이봉건(1999), 백승문, 황미영, 김영희(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연구자들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불건전사이트 이용 경험이 많고 음란물 접촉빈도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참여자 중 약 23%만이 유해사이트 활용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유해사이트활용경험이 있는 학생 중 월 10회 이상 이용하는 학생은 47명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정선(2002)과 문태화(200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체 연구대상의 약 70-80%이고 폭력 사이트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약 57%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금란(2002)의 연구에서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약 59%가 음란물 중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 표집과 지역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중학생을 층화다단계집락표집법으로 표집하여 수행한 연구이고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유해사이트를 활용한 경우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둘째, 유해사이트활용경험이 많은 여학생은 유해사이트활용빈도가 낮은 여학생보다 학습시간관리와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학습습관과 학업성취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습습관 관련 변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남학생이 높고, 학습시간관리와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유해사이트활용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의 학습시간관리와 학업성취도가 낮아져 그 결과 유해사이트활용빈도에 따른 학습시간관리와 학업성취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학습시간관리에 대해서는 고빈도집단보다 저빈도집단 또는 무빈도집단이 학습시간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도 무빈도집단이 중빈도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 또는 인터넷활용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다고 보고한 김병준과 김윤희(2004), 한정선과 김세영(2006), Kubey, Lavin과 Barrow(2001), Mythily, Qiu와 Winslow(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

습능력 중 하나인 학습시간관리능력이 낮은 학생이 유해사이트활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휴대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습시간관리능력이 낮다고 보고한 성은모, 진성희 (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볼 수 있다.

셋째, 남학생의 경우 유해사이트몰입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 제시한 인터넷 중독이 학업성취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인터넷 중독과 같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수준으로 유해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사례가 극소수이고 그 중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해사이트몰입도가 높기 때문에 여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중학생들의 유해사이트활용빈도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해사이트를 활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유해사이트를 중빈도 또는 고빈도로 활용하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학습활동을 열심히 하고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사이트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규칙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학교규칙준수와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기에 유해사이트를 이용하면 그것이 회상이 되고 생각을 하게 되므로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유해사이트활용빈도와 또래애착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1998)와 궤이영(2001)의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의 유해사이트활용은 친구관련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주로 친구와 함께 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친구와의 친밀감이 높으면 유해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오히려 친구로 인해 유해사이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유해사이트몰입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소외감을 더 느끼고, 학교생활적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중독과 친구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왕따와 같은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다고 하였는데(류진아, 2003; 심란희, 2004; 안경옥, 2005; 안세라, 2003; 황정미, 2004). 이와 마찬가지로 유해사이트몰입도가 높을수록 학생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남학생의 경우, 유해사이트몰입도가 높을수록 학습활동과 학교규칙준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체적으로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통해 학습능력 및 학교적응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안내할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모든 청소년들이 휴대폰과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생활주변에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강압적으로 청소년들의 유해사이트활용을 막기에는 불가능할 수 있다. 인터넷 게임문화로 인해 폭력사이트 접속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은 본능적일 수 있다. 건전한 인터넷 활용은 가정, 학교, 사회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부모교육이 가장 효과가 있으므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사이트 인증, TV 프로그램 인증 등 사회적인 규제를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업자들을 보다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다. 유해사이트중독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자기통제력 신장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주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져 청소년 스스로 자기를 조절 및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쉽게 유해환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및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201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연구도구를 활용과 연구도구에 대한 타당성 등의 검증에 있어 제한이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유해사이트중독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유해사이트활용 또는 중독이 자존감, 통제력, 정서적 불안, 폭행 성향 등 정서적인 측면과의 관계 연구와 함께 유해사이트접근 경로 및 활용패턴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해외 연구들과 비교하는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동향 속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유해사이트 노출현황에 대한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수준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예컨대, 문화적 차이인지, 테크놀로지를 수용하는 태도에 기인하는 것인지 등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활용 교육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성희 (2008).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터넷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교육학회**, 12(2), 213-222.
- 곽민주 (2004).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실태와 중독적 이용.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곽이영 (2001).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성 전자영상물이 청소년의 성에 대한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구현영 (2010)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과 예측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6(3), 203-210.
- 김경선 (2000). 컴퓨터 통신을 통한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실태와 성태도·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김병준, 김윤희 (2004). 중고생의 인터넷 사용과 체력, 학업 성취의 관계.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1(1), 111-123.
- 김세영 (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 통제력, 자기조절학습 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은경 (2007).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수준에 따른 자기통제력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 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 김은정, 이세용, 오승근 (2003).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 22(1), 125-139.
- 김현수, 김현실 (2000). 청소년 비행행동 측정도구 개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79-90.
- 류진아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문태화 (2002). 청소년의 폭력사이트 접촉경험이 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 박영호, 김미경 (2003).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3(1), 335-359.
- 백승문, 황미영, 김영희 (2003). 사이버공간 중독 유형과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환경. **대한가정학회지**. 41(1). 169-185.
- 보건복지부 (2008). **2008년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성은모 (2013). 초기 청소년의 휴대폰 활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2), 253-281.

- 성은모, 진성희 (201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휴대폰 활용이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8(4), 441-467.
- 소병권 (2005). 인터넷 사용이 초등학생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우석대학교.
- 심란희 (2004). 인터넷중독과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의 관련성. 석사학위 논문, 춘천교육대학교.
- 안경옥 (2005). 인터넷 사용 유형과 중독 여부에 따른 친구관계 및 가상 공간의 현실지각. 석사학위 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안세라 (2003).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인천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윤혜미, 남영옥 (2009).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자존감, 우울, 충동성과 사회관계. **생활과학연구논총**, 13(1), 125-143.
- 이봉건 (1999). 사이버공간에서의 중독; 통신, 인터넷 중독증의 증상과 예방, 사이버 공간의 심리. 서울: 박영사.
- 이세용 (2000).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건강연구소.
- 이소영 (2000). 게임의 중독 적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이승민 (2008). 중학생의 인터넷 이용 패턴과 사회과 학업 성취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형초 (2002). 인터넷 게임 중독의 진단척도 개발과 인지행동치료 효과.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정태근 (2005).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자기 통제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13(1), 143-163.
- 진중순 (2000). 高等學生의 PC통신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 최명숙 (2004).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이용이 공간능력 및 지각속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0(2), 57-79.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8).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200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청소년보호지표개발을 위한 지표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한상암, 이효민 (2006). 온라인 게임중독과 청소년범죄의 관계. **한국범죄심리연구**, 2(1), 229-244.
- 한정선, 김세영 (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 통제력, 자기

- 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2(2), 161-188.
- 한희진, 윤미선 (2009).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영향력. *교육문제연구*, 34, 81-100.
- 황정미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요인.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Augner, C. & Hacker, G. W. (2012). Associations between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and psychological parameters in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7(2), 437-441.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ianchi, A. & Phillips, J. G. (2005).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roblem mobile phone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8, 39-51.
- Brenner, V.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V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 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ical Reports*, 80, 897-882.
- Epstein, R. A. (2012).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 computer use and electronic game use. *International Scholarly Research Network Public Health*, Article ID 795868, doi:10.5402/2012/795868.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cmhc/mlists/research>.
- Kubey, R. W., Lavin, M. J., and Barrows, J. R. (2001). Internet use and collegiate academic performance decrements: Early findings. *Journal of Communication*, 51(2), 366-382.
- Lim, K. M. (2005). A Study on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in middle school students with the mobile phone addi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Mythily, S., Qui, S. and Winslow, M. (2008).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Excessive Internet Use among Youth in Singapore. *Annals Academy of Medicine Singapore*, 37, 9-14.
- Pawlak, C. (2002). Correlates of Internet use and addiction in adolescen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3 (05), 1727A. (UMI No. 3052530).
- Willoughby, T. (2008).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internet and computer game use by adolescent boys and girls: Prevalence, frequency of use, and psychosocial predictors. *Developmental Psychology*, 44(1), 195-204.
- Young, K. S. (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 Rep*, 79, 899-902.

Zimmerman, B. J. (1990).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n overview.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3-17.

\* 논문접수 2013년 8월 5일 / 1차 심사 2013년 9월 5일 / 게재승인 2013년 9월 22일

\* 진성희: 경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인하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로 있으며 주요관심분야는 창의성 증진 교수법, 집단지성 기반 협력학습, 디지털텍스트의 시각적 설계, 최소한의 노력으로 교육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적정 교수법(appropriate teaching strategies) 등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 E-mail: sungheejin13@inha.ac.kr

\* 성은모: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있으며, 주요관심분야는 스마트 미디어가 청소년의 인지, 정서, 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청소년 역량지표 개발 연구,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개발을 위한 인간시각지능의 적용 가능성 연구, 모바일 학습환경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및 학습효과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원리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 중에 있다.

\* E-mail: emsung@nypi.re.kr

## Abstract

## The Effects of Using Indecent Internet Site According to the Adolescence Gender Differences on Learning and School Life\*

Jin, Sung-Hee\*\*

Sung, Eunmo\*\*\*

Adolescents can recently use the internet in anytime and anyplace, so they can access easily offensive or harmful internet site.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effects of adolescents' internet use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s but these studies are mostly focus on internet addiction and there are a little studies related to indecent media us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olescents' indecent internet site use and flow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on learning and school life. Research participants are 2280 middle school students (M: 1152, F: 1128) who participated in the second year of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in 2012 and 538 middle school students(F: 428, F: 110) among them had experience in indecent internet site use. As results, approximately 23% students among research participants had used indecent internet site and approximately 8%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usually used harmful internet site more than 10 times per a month during the last year. The frequency and flow in indecent internet site use of male students were higher than them of female students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flow rate of indecent internet site the lower mal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The frequency and flow in indecent media negatively affected students' school life adjustment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eer attachment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indecent internet site. The research only showed that the more the indecent internet site flow, the more the sense of alienation. Based on research results, we have suggested some strategies on adolescents' sound internet use.

Key words: Indecent Internet site Use, Indecent Internet site Flow, Learning Habit, Learning Achievement, Peer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 This paper is revised the research report of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at is *The Effect of New Medium Use on Cognitive, Affective, and 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 Inha University,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Professor

\*\*\* Corresponding author,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ssistant Research Fellow